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52, 3048 <http://www.daegu.jubo.or.kr>



갈릴래아 나자렛의 성모영보대성당 정면

† 오늘의 전례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루카 4,21-30 참조)

주님께서 자라시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 온 나자렛 사람들은 동네 청년이었던 분이 은총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놀라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특별한 혜택을 주시겠거니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우리가 상상도 못할 때와 장소에서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제1독서 예레 1,4-5,17-19 **제2독서** 1코린 12,31-13,13 **복음** 루카 4,21-30

입당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오리다.

화답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고향을 떠나 사랑을 실천하는 방랑 예언자, 예수님

이압돈 압돈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금처럼 고향이 각광받는 시기는 또 없을 것입니다. 조상, 차례, 세배...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면 그리움과 함께 안정감마저 느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덜해 졌지만 그래도 고향은 동경의 대상이며, 나를 지탱하는 과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났음을 확인시켜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며 얻게 된 정체성과 추억이 함께 서려 있는 기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뿌리'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며 예언자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언자의 삶이 어떠한기에 자신의 과거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을 들을 때와 예수님의 공생활은 확연이 달랐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기도 하였을 테고,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하는 배척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의 삶이 과거의 삶과 다르고 또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맘때쯤 통상 세 번의 매듭을 짓습니다.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던 두 달 전, 세상의 달력으로 새해를 맞던 한 달 전, 그리고 눈앞에 놓인 설날 새해. 나는 과거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다시 고민해보고 결심해 봅니다. 예언자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도 과거의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예전과 똑같다면 동네에서는 환영받겠지만 예언자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무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여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웠다.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전의 내가 사랑하던 것 보다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벼랑으로 내몰리더라도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예언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문**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2013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에 알퇴팅의 성모 순례지에서 거행하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모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고립되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분명한 표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5-37 참조)이라는 모범적인 인물을 성찰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심신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날마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교부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서 아담, 곧 죄 때문에 상처입고 길 잃은 인류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고통에 다가가셨고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승에까지 내려가셨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신앙의 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사랑의 봉사를 강화하여 우리가 모두

이웃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회 역사에서, 병자들이 그들 고통에 담긴 인간적 영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곧 “사랑의 학문의 전문가”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병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가정자 루이지 노바레제, 세계 한센병자의 날 제정에 기여한 라울 폴레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돌보지 않는’ 사람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섬겼던 콜카타의 데레사 복자,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시킬 줄 아는 모범을 보여 준 민텔슈테텐의 안나 세퍼 성녀를 생각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수난하시는 당신 아드님을 해골 터의 지고한 희생에 이르기까지 따르신 분으로 두드러집니다.

끝으로, 가톨릭 의료 기관과 시민 사회 그리고 교구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보건 사목에 종사하는 수도회, 그리고 보건 종사자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성모님께서 자비의 사도직에 종사하는 모든 이를 도우시어, 그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3년 1월 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힐링 코드(Healing Code)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 | 삼덕본당 부주임

IMF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코드는 생존을 위한 ‘자기계발’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보면 자기계발, 성공학 코너의 책들이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자기생존 전략이기도 했겠지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떻게든 살아내기에 집중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성공한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접근하는 열풍이 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너무 뜨겁게 달구었던 탓인지 요즘은 온통 힐링(healing), 치유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치유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처럼 힐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적인 생리도 더해져서 힐링상품 소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양은 힐링센터(Healing Center), 건강에는 힐링팜스(Healing Farms), 예능은 힐링캠프(Healing Camp).... 힐링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한 때를 풍미한 웰빙(well-being) 상품들을 이름만 바꾼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힐링의 원조는 사실 이러저러한 상품이 아니라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말씀과 손길로 치유하신 예수님의 힐링코드 안에서 치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이들은 우리 시대처럼 힐링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모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치유의 결과는 ‘새로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힘이 그저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옛 삶으로의 복귀만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들은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치유를 베풀어줌으로써 치유의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힐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힐링을 베풀어주는 주체로서 힐링의 은혜를 채워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나눴으로써 사랑이 채워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치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채워가기만 하는 소비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사랑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문**

고정관념이 생사를 가르다

1950년대 영국의 컨테이너선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짐이 내려진 후에 선원하나가 짐이 다 부쳐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른 선원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 냉동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자신이 곧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먹을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쇠꼬챙이 하나를 집어 들고 날짜별로 시간별로 자신이 겪는 죽음의 고통을 적어나갔습니다.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갔습니다. 이윽고 코가 얼기 시작했고 냉기는 폐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온몸이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 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 선원은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뺨뺨이 써놓은 고통의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컨테이너 안이 꽤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온도를 재어 보았습니다. 온도는 섭씨 19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회항하는 동안 컨테이너 안에는 아무것도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장치는 가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원은 그러니까 결국 섭씨 19도에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춥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상상 속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필독**

금주의 성인



성녀 아가타 (2월 5일)

카타니아의 아가타 성녀께서는 로마 박해시대에 순교하신 루치아, 아녜스, 체칠리아 성녀와 더불어 교회의 네 동정녀 순교자 중 한 분이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매음굴에 끌려가 배교를 강요받고 양가슴을 도려내는 잔혹행위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다가 감옥에서 선종하셨다고 한다. 선종 후 카타니아의 화산폭발을 진정시킨 것이 성녀의 통공이었다고 전해져 남부 독일에

서는 빵이나 초, 과일, 편지들을 성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불에 의한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성녀께서는 카타니아의 수호자이시며 주물공, 광부, 산악 안내인, 그리고 간호사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 교구 제2주보 성 이윤일 요한 축일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월 21일(월) 오후 2시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교구 제2주보 성 이윤일 요한 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이날 미사는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1대리구장 하성호(사도 요한) 주교대리 신부님, 교구 사무처장 박석재(가롤로) 신부님, 교구 비서실장 김성래(하상 바오로) 신부님, 관덕정순교기념관 관장 여영환(오토) 신부님께서 공동 집전하셨다.

2013년 성경통독피정

왜냐, 이스라엘(신명 6,4)

말씀을 듣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일정	차수	피정 날짜	신청 마감
	제 1 차 >>	3월 2 ~ 3일(토~일)	2월 22일(금)
	제 2 차 >>	3월 23~24일	3월 15일(금)
	제 3 차 >>	4월 27~28일	4월 19일(금)
	제 4 차 >>	5월 11 ~ 12일	5월 3일(금)
	제 5 차 >>	7월 27~28일	7월 19일(금)
	제 6 차 >>	8월 31 ~ 9월 1일	8월 23일(금)
	제 7 차 >>	10월 12~ 13일	10월 4일(금)
	제 8 차 >>	10월 26~27일	10월 18일(금)
	제 9 차 >>	11월 30~ 12월 1일	11월 22일(금)
	제 10 차 >>	12월 21~22일	12월 13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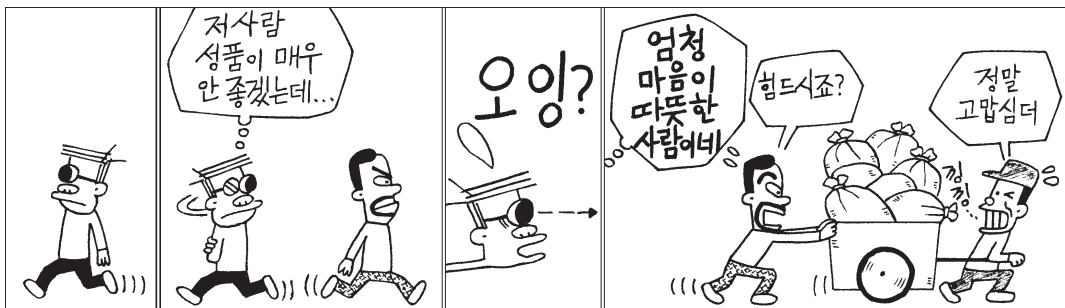
장소 _ 베네딕도 영성관(대구시 북구 사수동 133번지 / 313-3425~6)

회비 _ 1회 5만 원(10회 신청시 45만 원)

문의 _ 대구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cafe.daum.net/biap

겉만 보고 속단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4일(월) 오전 11시 월성성당
-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4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2월 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4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2월 4일(월) 오전 11시 30분 범어성당
-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2월 4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교육관 대성당

성소 | 피정

겨자씨성서모임 수강생 모집

구약반: 월 20:00, 금 10:00
 신약반: 월·목 10:00, 월 20:00
 연구과: 월 10:00, 수 20:00
 문의: 625-4627 / (010)4107-4627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0:00
 넷째 주일 14:00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문의: (010)2568-5231

<http://cafe.daum.net/vocatio>

젊은이 화요 Lectio Divina 모임

일시: 2,26(화) 첫모임 / 19:0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내 찌라울
 문의: (010)8519-3431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08차: 2,22(금)~24(일)
 장소: 한티, 접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성체신심세미나

기간: 2,22(금)~24(일)

장소: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강사: 이흥근, 하성호, 송재준,
 서덕교, 정기모

내용: 현시, 조배, 참회예절, 성사, 안수
 신청: 15만 원, (010)5493-1819

예수성심의 영성

기간: 3,16(토)~17(일)
 대상: 18세~34세(미혼)
 주최: 예수성심수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제주 성이시들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기간: 3,2~5 / 3,10~13 / 3,19~22
 4,1~4 / 4,6~9 / 4,16~19

장소: 제주 성이시들 목장 내
 신청: 성이시들 피정센터 (02)773-1455

교육 | 모임

꽃동네 믿음의 해 신앙교육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
 강의: 오웅진(사도요한) 신부
 내용: 은사생활, 미사와 안수(성경)
 문의: (010)7312-4555

테클라 모임

일시: 2,4(월) 19:30
 장소: 바오로팔서원(동성로)
 내용: 영상과 함께 하는 렉시오디비나
 대상: 미혼여성
 문의: 양체사리아 수녀 (010)2503-5185

5차원 전면학습코칭 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2,22(금)~24(일), 30기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대상: 초·중·고·대생(선착순 30명)
 주관: 우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
 문의: (010)3883-7004

경산 어버이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신입생: 구약2년, 신약2년 총4년과정
 낮반-목요일, 밤반-금요일
 심화반: 4년수료자위한 2년과정(교훈서)
 낮반, 밤반-월요일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815-7888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8(금)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추외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이상)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이원 의료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뜰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법(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 / 원장 이준석(아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상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
 허리통증 인공관절 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백두정형외과 T.053)425-5919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영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성모아이한의원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아토피/성장장애 · 감기예방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원 통국대 한의학과 교수
 ☎ (053)592-1275

용성운수(주)
 택시운전기사 모집
 (초보자 및 여성분 환영)
 박 안젤라 메리치
 ☎ 053)562-4588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전대사 미사

일시: 2.11(월) 11:00, 성모당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교육 | 모집

예로니모 성경대학 2013년 불학기

기간: 3월~5월 매주 목요일, 동춘성당
14:00~16:00 / 20:00~21:30
내용: 예수어록, 마태오복음
루카복음, 사도행전
강사: 박영식(야고보) 신부

대구가톨릭음악원 제25기 신입생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성가대원 연수

내용: 시편성가와 발성법
회비: 무료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 · 어학연수

2차: 2.28(목)출발(8, 12주)
3차: 3.24(일)출발(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켈트, 리본공예,

POP,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플룻, 대금
문의: 476-6211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기간: 1.2(수)~3.29(금)
교육기간: 4.4(목)~6.28(금)
교육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2013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2013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6 / 3366

성가 발성 마스터클래스

1기 첫모임: 2.16(토) 18:00
과정: 3개월 12주, 20명 한정
신청: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남녀
접수: 2.14(목)까지
문의: 476-3100

SPC상담심리센터 · 에니어그램 연구소 교육생 모집

에니어그램1단계: 저녁반 3.6(수)
오전반 3.7(목)
문의: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254-2664 / 659-3455~6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교사 연수

일시: 3.7(목) 10:30~17:00, 만촌1동성당
준비물: 교사, 부모, 어린이용 교재
문의: (02)945-3300 / (010)3193-3348
www.biblelife.co.kr

훈인과 가정대학 신학원 학생 모집

모집기간: 2.22(금), 17:00
제출서류: 서류교부처 참조
서류교부처: www.dccatholic.ac.kr
접수비: 1만 원
문의: 대전가톨릭대학교
(044)861-7201

채용 | 안내

성김대건성당 여사무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자격: PC 가능한 자, 20~30대
마감: 2.17(일)
문의: (053)742-250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산성모유치원 교사 채용

모집: 교사 경력 1명, 인턴 1명
몬테소리교육 이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문의전화: 811-8324

2013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 52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마리아)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인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학교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의사가 보약 지으러 오는 한의원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 연 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익 ☎ (053)642-7575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주)분도 **죽복을전하는사람들**
분도석유 / 주유소
난방유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사회적기업 대표 김 현 철(베네딕도)